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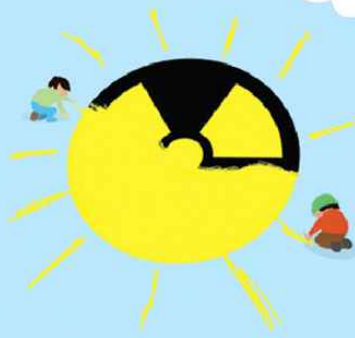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살!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하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어떤 수감자의 크리스마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한 여성 정치인 자서전의 일부분으로 1979년 상황입니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으로 나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온몸이 쫄쫄 묶인 채 밤새도록 구타를 당했다. 온 몸은 피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부은 피부는 스킨기만 해도 면도날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컷전에 올려오는 뒹뒹거림 속에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아스라하게만 들려왔다. 셀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잃었고 차라리 그 순간이 행복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그들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다. ‘빨갱이’ 입을 싹토하라는 것이었다.
 아! 나는 패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나는 삶에 희망을 잃고 절망했다. 언제 다시 되풀이될지 모를 고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안으로 안으로만 웅크려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텅 빈 독방이 주는 중압감과 나의 소리, 나의 마음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뻣속 깊이 후벼 파는 절체절명의 외로움이었다.

1979년 11월 13일 그날의 기온은 영하 13도였다. 내가 구치된 서울구치소에는 난방장치는 물론이며 온기가 퍼질 불씨라곤 단 한군데도 없었다. 정치범인 나는 독방에 구치되어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 가질 동료조차 없었다. 고문으로 망가진 나의 가냘픈 몸뚱이를 아픈 추위가 파고들었다. 내가 입고 있던 푸른 수의는 처절한 추위를 막아주기에는 너무 얇았다.

1979년 12월 24일 성탄전야. 내 인생에 차마 잊히지 않는 소중하고 고귀한 성탄전야다. 꿈결처럼 아득한 울림이 들려왔다. 그 울림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아련하게 울려오고 있었다.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를 따라 방 옆에 붙어있던 악취 풍기는 변소로 들어갔다. 두 손으로 옥창의 창살을 부여잡고 세상 밖으로 귀를 내밀었다. “한명숙, 한명숙. 힘내라!”

수의번호가 아닌 살아 있는 나, 한명숙을 부르고 있었다. 내 평생 그렇게 아름답고 강렬한 성탄 메시지를 들었던 적이 없다. 빛을 잃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좌절해 있던 나를 극적으로 소생시켰다. 그 이후 나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호흡곤란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권에 의해 사찰과 압력에 노출된 대법관 또 고위 판사. 이들은 한명숙 전 총리를 지금 감옥에 보냈습니다. 재판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유죄 수감입니다. ‘다시 온 유신의 끝자락’에서 ‘변함없는 옥살이’의 한명숙을 기억합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23일(금) 1부 | 정유라 끝내 발견...“스위스 망명 타진중”

- [오프닝] 1979년 겨울·어떤 수감자의 크리스마스
-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박근혜, 미사리 개발 지시·최순실 이로써 17억 차익
- 정유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변화가 활발하다 딱 걸려
- 최순실 은닉 재산 8000억? 10조원 은닉 정확 확인
- 반기문 부친 묘 이상·때가 때인만큼 풍수 덕 좀 보려?
- [뉴스듣기능력평가] 성탄절 '동방박사 세 사람' 관련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외교 공무원 성범희 또 적발·이번엔 대사의 성희롱
- “사드로 중국인 관광객 급감” 수치로 확인됐다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특검 삼성 정호준 계기로 보는 삼성 지배구조의 쟁점
- [공화국 논평] 박근혜 부정하는 ‘간기문’에 대한 조치

부도덕한 모녀

朝鮮日報 崔, '미사리 개발' 로 17억 차익

2013년 9월 대통령 박근혜는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밤늦은 시각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니 미사리에 복합 생활체육 시설을 만드는게 어떠냐며 개발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사리는 최순실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다. 미사리는 최근 3년간 개발붐이 상당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땅값이 뛰어올랐다. 당연히 최순실은 지난해 부동산을 매각해 17억 5천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할 때, 박근혜는 미사리를 개발했다.

경향신문 “정유라, 프랑크푸르트 활보”

지난 15일 정유라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한 독일 현지 교민에 의하면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정유라와 독일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그의 동생,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 등 총 5명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이 탄 차량은 '그로세 갈루스슈트라세'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독일 최대 은행들과 주요 명품관들이 밀집한 곳이다. 아이고 팔자 좋네. 경향신문 보도, YTN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가 스위스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막말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들어와야 한다.

한국일보 최순실 은닉 재산, 10조 추정

독일 검찰이 최순실, 정유라가 최대 10조원의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 정도면 독일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이다. 그래서 독일 검찰은 최순실 정유라와 조력자 10명을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또한 최순실 일당이 페이퍼컴퍼니 500여개를 설립한 곳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순실이 영국에서 귀국했지?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도 주요 조세회피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최순실의 정확한 해외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 수사

東亞日報 삼성 최순실 지원금의 대가성 포착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을 협박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최순실의 한 측근에 의하면 최순실 소유의 독일회사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257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후 박원오 전 전무는 승마 선수 지원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한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박원오 전 전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코어스포츠 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 물어버리겠다”고 최순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승마 특혜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과 최순실 사이의 거래 배경에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삼성과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가 얽힌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일보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최광 전 이사장 집에서 압수수색한 건데, 중요 주인공이 있다. 삼성 합병 찬성을 주도한 홍완선 전 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다. 최광 전 이사장은 홍완선 연임을 반대했다. 그런데 최광은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다. 삼성을 비호하던 홍완선을 윗분이 두둔했다는 이야기다. 홍완선은 사실 처음엔 삼성 합병에 반대했다. 그러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홍완선을 두둔한 권력자가 시켜서일 거다.

윗물이 맑아야...

朝鮮日報 박근혜 닳아가는 공무원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 관료 조직의 기강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는 낮 12시부터가 점심시간인데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공무원 수십 명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찌감치 점심을 해결한 공무원들은 돌아와 낮잠을 즐겼다. 또한 일부 공무원은 오후 1시 40분이 되어서야 청사로 복귀했다. 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국회발신 번호가 뜨면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여하간 이 혼란이 길어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반기문의 대선 행보

국민일보 반기문 부친 묘소, 명당 이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부친의 묘를 이른바 ‘명당’ 자리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실은 국민일보의 주 독자일 기독교인들, 어떤 생각을 할까?



제목은 “우병우 이 시대의 일그러진 엘리트”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검찰·정보기관·군·경찰·국세청 등의 권력기관 사이에 견제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과거의 힘을 잃었고 결국 권력 옆에는 검찰이 유일한 칼로 남았다. 검찰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권력구조는 박근혜 정권에서 심화됐다. 박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앉혔고, 검찰 출신들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래도 못 미더웠는지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KT) 출신들을 검찰 핵심부에 포진시켰다.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불리한 여론 차단과 사정(司正)에 기댔 수밖에 없었고 일 잘하기로 2등 가라면 서러운 우 전 수석은 그 임무에 충실했다. 여기에 안하무인 성향으로 비치는 그의 캐릭터가 불통 이미지를 키웠다. 위만 보고 달려온 그의 손에 쥐어진 칼은 더욱 위험해 보였다. 그러다 결국 시민 저항에 몰락한 정권과 함께 추락했다. 그의 대한민국에는 자신의 출세를 가능케 해 줬던 공동체도, 국민도 없었다. 시민들이 토끼몰이하듯 해 만든 청문회에서 해명과 자기 주장에만 급급했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권력을 남용해 자신들만의 구중궁궐 속 ‘내부자’ 세계를 만든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AI에 대처하는 대기업의 자세

YTN SPC, 직원들 동원해 ‘달걀 사재기’

국내 제빵업계 1위인 SPC 그룹이 직원들을 동원해 달걀 사재기를 한 사실이 회사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실제로 SPC의 제빵 공장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달걀을 가져다준 뒤 정산용 확인증을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SPC 측은 일부 직원이 애사심에서 스스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SPC 직원들은 YTN 보도 이후, 회사 차원에서 함구령이 내려졌고, 문제의 문건도 모두 거둬가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애사심을 왜 감추나.

오늘의 칼럼

중앙일보 우병우, 이 시대 일그러진 엘리트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이상언 사회부장의 글이다.

